

탁구 천재 신유빈 53년만에 준우승

(亞선수권 여자단식)

결승전 日 하야타에 패...국제대회 첫 단식메달



한국탁구의 미래 신유빈이 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1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단식 결승전 직후 은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다. 신유빈이 국제대회에서 따낸 첫 단식 메달이다. 도하(카타르) | 신화뉴스

‘탁구천재’ 신유빈(17·대한항공)이 2021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식 은메달을 수확했다. 신유빈은 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하야타 하나(일본)에게 세트스코어 1-3(11-7 4-11 8-11 4-11)으로 패했다. 결승에 앞서 이날 벌어진 안도 미나미(일본)와 준결승에선 3-1로

이겼다. 한국여자단식선수로는 1968년 자카르타대회 금메달리스트 최정숙 이후 53년 만에 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내전김에 금메달까지 노렸으나 하야타의 벽을 넘지 못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국제탁구연맹(ITTF)이 아시아 대표단체를 아시아탁구연맹(ATTF)이 아닌 아시아탁구연합(ATTU)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신유빈은 한국여자단식 최초로 이 대회 결승에 오른 선수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이 불참한 가운데 일본의 상위 랭커들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랭킹 80위 신유빈은 결승에서 21위 하야타를 상대로 첫 세트를 따내며 분전했다. 뒷심에서 밀려 내리 3세트를 내줬다.

2020도쿄올림픽 출전과 함께 ‘탁구천재’로 눈길을 끈 신유빈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국제대회 단식 종목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지희(29·포스코에너지) 등 선배들이 8강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홀로 4강에 올라 은메달까지 따내며 한국탁구의 자존심을 살렸다.

정윤성 기자 award@donga.com

▶‘제네시스 챔피언십 내일 팡파르’ 1면에서 이어집니다

제네시스는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방역 지침에 맞게 세심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다. 공식 호텔 내 선수 전용 동선과 공간 제공, 대회 전 출전 선수 전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전 공간 발열 체크를 위한 방역 게이트 운영, 매일 클럽하우스 내부 소독, 선수·관계자·미디어 동선 분리 등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지난해 선수, 가족, 갤러리 모두를 연결하는 의미인 ‘Golf Connects’를 주제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던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올해 캐디 지원 서비스까지 더한 ‘Golf Connects 2.0’으로 한국 남자 프로 골프 발전을 위한 단계 향상된 지원을 펼친다.

제네시스는 캐디가 착용하는 조끼인 ‘캐디 빙(Caddie bib)’에 선수 이름과 캐디 이름을 함께 표기해 캐디를 예우하는 ‘캐디빙 네이밍 서비스’와 캐디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캐디 전용 라운지’,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캐디를 따라다니며 지원하는 ‘로봇 캐디’ 등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무관중 대회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탓에 대회장에 오지 못하는 갤러리들을 위해 제네시스 챔피언십 모자와 장갑 등으로 구성된 ‘집관 패키지’를 준비했다. 선착순 100명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판매한 이 패키지는 이를 만에 ‘완판’됐다. 제네시스는 집관 패키지에 2022 제네시스 챔피언십 입장권을 동봉해 다음 대회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대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홍철, 집합금지때 K리거·여성 등 8명 파티”

연인관계 주장한 A씨 SNS서 폭로 “1년반 교제기간 10명 여성과 바람 하루밤 즐기고 성병까지 걸려오고” 밴투후 부담...태극마크 반납 거론도



축구국가대표팀 측면수비수 홍철(31·울산 현대)이 추문에 휩싸였다. 홍철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A씨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함께 홍철이 여러 명의 다른 여성들과 나눈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1년 반 가량의 교제기간 중 홍철은 10여명의 다른 여성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홍철은) 평소 휴대폰을 절대 안 보여주는데, 술에 취해 휴대폰 (잠금) 풀린 줄도 모르고 잠을 자더라”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하루밤 즐기고 성병 걸려오고 일년 반을 재밌었으니 그 이름이 얼마나 타격이 큰 지도 알아야 한다”며 분노했다. 시리아(7일 오후 8시·안산)~이란(12일 오후 10시30분·테헤란)으로 이어질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4차전을 앞두고 4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한 대표팀에 합류한 홍철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축구계도 불안하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표팀은 부담스러운 일전들을 목전

에 두고 있다. 특히 테헤란 원정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분수령’으로 인식될 만큼 집중이 필요한 경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홍철의 태극마크 반납을 거론하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자체 조사 후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에게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민감한 이슈에 휘말린 홍철이 대표팀에 잔류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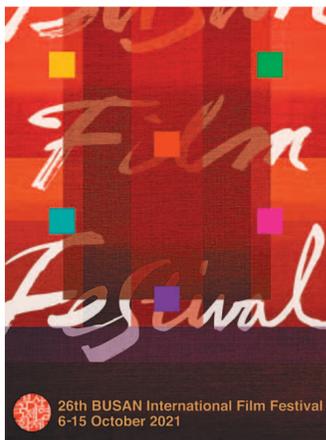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울산으로선 다른 걱정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다. A씨는 “홍철의 K리그 친구들, 현역 은퇴한 유부남 선수들까지 여자들과 어울려 집합금지 시기에 8명이 모여 파티까지 열었다”고 주장했다. K리그 관계자는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직접 선수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충격적인 위당도 있었고 팩트와 다른 메시지를 적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 형식의 글을 띄웠으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수준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국가대표 폴백 홍철이 연인 폭로로 추문에 휘말린 가운데 축구계도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파주 NFC에서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몸을 풀고 있는 홍철.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팡파르...70개국 영화의 축제가 시작된다

개막작 ‘행복의 나라로’ 시작 박찬호 감독 등 거장 총 출동 OTT·드라마 작품도 선보여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26번째 축제의 빛을 올린다. 6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송중기·박소담이 진행하는 개막식과 개막작 ‘행복의 나라로’ 상영을 시작으로 70개국 223편의 장단편영화를 상영하며 스타들과 함께 관객을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해 축소 운영한 아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영역으로도 무대를 넓혀 풍성한 축제를 펼친다.

●거장에서부터 청춘스타까지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는 임권택 감독을 비롯해 ‘행복의 나라로’의 임상수·‘올드보이’ 박찬욱·‘기생충’ 봉준호 등 한

국영화 대표적 감독들이 부산을 찾는다. 또 거장의 작품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서 일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드라이브 마이카’와 ‘우연과 상상’을, 레오스 카카스 감독은 ‘아네트’를 각각 선보인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7일 봉준호 감독과 ‘스페셜 대담’을 나눈다.

스타급 배우들도 관객과 함께한다. 이제훈·전종서·한예리·변요한 등이 삶과 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액티스 하우스’ 무대를 올릴 예정이다. 이제훈과 박정민, 손석구와 최희서는 ‘인프레이드’ 프로젝트로 직접 연출한 단편영화를 선보인다. ‘승리호’의 송중기, ‘싱크홀’의 김성균·이광수 등도 관객을 만난다. 전여빈은 관객 참여 무대인 커뮤니티비프 행사를 위해 남포동 비프광장에 나선다.

●OTT 작품에 드라마까지 올해 영화제는 OTT(온라인 동영상 스

트링 서비스)와 드라마에도 무대를 열어 준다.

“확장되는 영화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해 ‘플랫폼과 영화제가 서로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윈윈 모델’을 위한 ‘온스크린’ 섹션을 신설, 넷플릭스의 ‘지옥’과 ‘마이 네임’ 등을 선보인다. ‘지옥’의 박정민·유아인, ‘마이네임’의 한소희·박희순 등이 작품을 소개한다.

또 활발한 TV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항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김성훈·D.P.’의 한준희 감독 등 스크린 출신 연출자들도 초대했다. 이들은 ‘영화 만들기’와 ‘드라마 만들기’ 오픈토크에서 “변화하는 창작 환경 속 흥미로운 창작 과정”을 들려준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5일까지 펼쳐지며 이날 개막작 ‘매명방’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BTS·콜드플레이 협업 ‘마이 유니버스’ 빌보드 핫 100 1위

두 그룹 합작곡 빌보드 사상 첫 1위 1년1개월동안 무려 6곡 차트 정상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시 한번 의미 깊은 성적을 거뒀다. 방탄소년단은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노래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 5일(이하 한국시간)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핫 록 & 얼터너티브 송스’ 차트에서도 첫 1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차트 사상 두 그룹의 합작곡이 ‘핫 100’ 1위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는 그동안 세계적인 팬덤을 구축하고 글로벌 파워를 드러내 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다이

너마이트’로 한국가수 최초로 차트 정상에 오른 뒤 1년 1개월 동안 ‘세비지 러브’ ‘라이프 고스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 등 6곡의 1위곡을 내놨다. 이

날 빌보드는 “1964~66년 비틀스의 1년 2주 이후 최단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날 빌보드에 따르면 9월24일 전 세계 동시 공개된 ‘마이 유니버스’는 9월30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1150만건 스트리밍됐다. 12만7000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며 현지 550만 라디오 청취자에게 노출됐다.

방탄소년단은 ‘마이 유니버스’에 우리말 가사로 뒤로 메시지를 담았다. 노래는 15일 콜드플레이의 정규 9집에 담긴다. 콜드플레이는 ‘마이 유니버스’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핫100’ 1위에 올랐다.

그룹 있지(ITZY)도 9월24일 선보인 정규 1집 ‘크레이지 인 러브’(CRAZY IN LOVE)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케이(K)팝 걸 그룹 가운데서는 블랙핑크(2위)와 트와이스(6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순위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